

## 아산 · 천안의 변천

From the Ancient to Today  
: The Rise and Development of Asan

신문기/ 호서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by Shin Moon-Ki

### 1. 아산에서의 온양의 역할과 아산의 비상

#### 1) 근세 이전의 아산

현재까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유적이 발견된 바는 없으나, 인근의 당진 지방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많이 발견된 것을 볼 때 이 시기부터 사람들이 아산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아산만 지역에서도 선사시대의 유적이 발견되리라 생각되어진다. 현재 발굴된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서 둔포면 둔포리와 염치면 백암리의 석관묘에서 동축, 동검 및 토기가 출토되고, 신창면 남성리의 석관묘에서는 기원전 3세기초에서 말경으로 추정되는 세형동검과 다뉴조문경, 곡옥, 방패형동기 등이 출토되었다.

아산이라는 지명은 백제 때의 지명 아술에서 변화된 이름이며, 백제시대에 탕정군, 아술현, 굴지현으로 구획되었다. 신라의 영역이 되면서 아술현은 음봉현으로, 굴지현은 기랑현으로 개칭되어 현재의 온양인 탕정군의 부속현이 되었다. 탕정군은 신라 문무왕 초기 탕정주로 승격시켰다가 후에 군으로 복귀시켰다. 고려 태조때 천안 도독부를 설치하고 현 아산시의 배방면 일부와 음봉, 탕정의 몇 개 마을을 이에 귀속시켰다. 고려 현종 9년(1018) 음봉현은 인주, 기랑현은 신창현, 탕정군을 온수군으로 고쳐 천안부에 소속시켜 천안과 병합되었다. 인주는 후에 아주로 고치고 감무를 두고, 명종 2년(1172)에 온수현을 다시 분리시켜 감무를 두었다. 이조 태종 14년(1414) 온수를 신창현과 병합하여 온창현이라 개칭하였으나 태종 16년(1416) 온수현과 신창현으로 분리하였다. 그후 세종

24년(1442년) 세종대왕이 신병오양차 온천에 신행하여 온양군으로 승격되었다. 이주는 태종 13년(1413) 아산으로 고치고 현감이 임명되었으나 세조 4년(1458) 아산현을 충청도 관찰사 황효원의 건의에 의하여 온양, 평택, 신창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관아의 건물과 토지를 황수신이 모두 차지하였다가 1465년 아산현으로 복귀되었다. 그리고 연산군 11년(1505)에 공신과 비빈궁녀의 사전(賜田)이 많아 경기의 땅이 좁아서 현 천안의 직산현과 함께 경기도에 이속되었다가 중종초에 충청도로 환속하였다.

#### (1) 온양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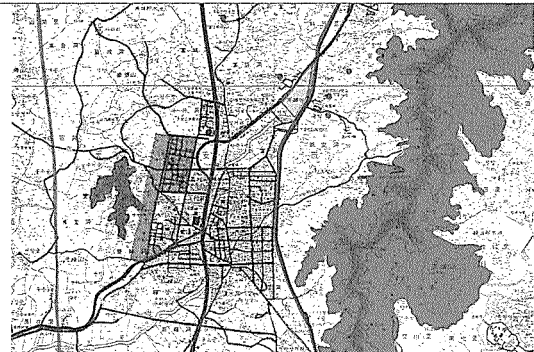
아산에서 온양의 역할은 특별하였다. 온양 온천은 발견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삼한시대 이전부터 온천이 발견되어 알려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문헌상 기록된 것은 백제시대 이후이며 온양지방을 탕정군이라 칭한 것도 '탕정(湯井)' 즉 '끓는 우물'이라는 뜻이니 온천을 의미하며, 고려때 온수군의 '온수(溫水)'도 '따뜻한 물'이니 온천을 지칭하는 것이다. 관할구역의 범위가 인구수를 보더라도 군수를 보임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나 세종 24년 온양군으로 개칭하고 정 6품 현감에서 정 4품의 군수를 보임토록 한 것도 온천수 때문에 행정구역이 격상된 것이었다. 조선 왕조 이전에는 임금의 온양온천 행궁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세종대왕의 온행 이후 온천육을 위한 역대왕실의 행궁이 잦았다. 세종 때는 3차례의 온행으로 규모는 분명하지 않으나 현 온양관광호텔 자리에 임시 궁전인 온천행궁이 건축되었다. 이후 세조때 행궁을 중수하고 확장하였는데 그 규모는 내전이 16칸, 외정전이 12칸, 탕실이 12칸, 해파정이 10칸, 함락당이 12칸이었다. 세조의 행궁때 온정(溫井) 바로 옆에 얼음처럼 차고 맑은 물이 솟아나서 우물을 파고 신정(神井)이라고 이름지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 길조라고 기뻐하며 기록케 했는데 이것이 '주필신정기'이며 이 기록을 비석에 새겨 신정 옆에 세웠다. 이러한 온행을 계기로 아산현의 복구를 상소하여 세조 11년(1465)년 온양, 평택, 신창으로 나누어진 아산현을 복구하였다. 이 이후 현종, 숙종, 영조, 장헌세자가 온행을 하였으며 현종과 영종때는 온행하여 온양에서 문과와 무과의 과거도 시행하였다. 이조 말기 흥선대원군이 온천행

1) 현령을 들 수 없는 작은 고을에는 감무를 두었음.



천안시의 도시 및 지형현황  
(자료제공: 이재훈)

아산시의 도시 및 지형현황  
(자료제공: 이재훈)



공을 수리하고 자신의 별장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나 대원군의 온천 행차 기록은 발견되지 못했다. 이처럼 온양온천은 널리 알려졌으나 도고면에 있는 도고온천은 신라때 태자가 이곳에 와서 유향천에 목욕을 하고 이곳 사람들에게 민폐됨을 꺼려 숲으로 초정을 메우고 이 유향천을 버려두어 1912년 장항선이 통한 후에 온천시설을 하기까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 2) 근세 이후의 아산

한일합방이후 1914년에 전국 360 군면을 축소 조정하여 210군으로 통폐합시 온양, 아산, 신창 세군을 통합하여 아산군이라 하고 관하에 12개 면을 두고 군청소재지는 온양이었다. 1944년 온양면이 온양읍으로 승격하고 1973년과 1983년 탕정면 모종리, 권곡리와 배방면 남리, 탕정면 신리, 신창면 점량리, 득산리, 실목리를 온양읍에 편입한 후 1986년 온양시로 승격하여 분리되었다가,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아산시로 개편되었다.

### (1) 온양 온천의 퇴조

온천 행궁은 조선왕조의 왕실 소유의 재산이었으나 흥선대원군이 별세한후 소유권이 불확실하게 되었으며 일제 침략후 소유권이 일본인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온양온천 주식회사' 라는 기업체를 설립하여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 지하 깊숙히 온천수를 채취하여 '신정관' 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였다. 일제 패망 후 우리 교통부에서 관리하다가 625때 신정관이 소실되어 그 자리에 '온양 철도호텔' 을 지어 운영하다가 민간에 불하하여 지금의 '온양관광호텔' 이 되었다. 이 신정관은 온양에서의 3층집의 시초이며, 2층집의 시초는 현 온양관광호텔 건물 위치에 1910년경 세운 목조 2층건물인 경남철도 주식회사이다. 4층, 5층집은 1960년대에는 나타났다. 그리고 온양온천에 대중목욕탕이 생긴 것은 1905년경 초가 40평 가량의 반지하 토굴으로 이루어진 시설이며, 본격적으로 현대화된 대중목욕탕은 1920년경 경남철도 주식회사가 위의 시설을 매입하여 신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온양에는 8개소의 관광호텔과 대중목욕탕에서 온천욕을 하고 있으나 영세한 시설 및 온천수의 부족으로 하향세에 있으며, 오히려 도고와 음봉에 풍부한 온천수가 개발되고 대규모 시설이 투자되어 온양보다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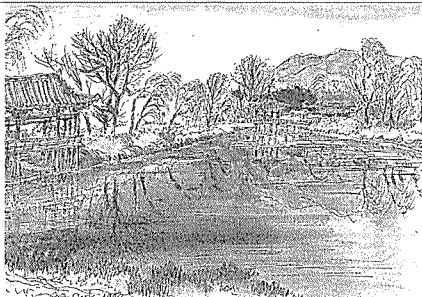
### (2) 공업화로의 도약

현재 아산시를 공업도시의 기반으로 올려 놓고 있는 것은 아산만 방조제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산만 연안은 어류의 공급뿐 아니라 굴, 조개, 김양식 및 염전이 성행한 한가한 어촌이었다. 그러나 1971년 3월 길이가 150m에 이르는 아산 방조제가 착공되어 저수량 1억 2300만톤의 인공담수호인 아산호가 등장하여 4,674ha에 달하는 새로운 농지 확보뿐 아니라 이 지역의 농업용수의 부족과 역류하는 해수에 의한 농경지의 염해를 해결하였고, 제방위에 12m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아산-평택간 왕래가 쉽게 되었다. 1979년 아산방조제의 4배가 되는 삼교천 방조제가 건설됨으로써 삼교호가 형성되어 농업 및 공업용수개발, 경지정리, 영농기계화 등 이지역 개발의 혁신적인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8년 2월 아산호 방조제와 나란하게 6차선 교량을 설치하여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하고 아산만과 접하고 있는 지형으로 인하여 서해안 시대의 핵심도시로 부상되어 배방, 탕정에 삼성전자와 인주 제2공단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건립되는 등 공업도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부설계획을 세우고 1992년 천안-대전간을 시범 공사구로 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탕정평야의 일부인 염치면에 역세권 신시가지인 대규모 저층 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목동 및 방축동의 아파트 단지 개발처럼 천안 자본주의 경제원리에만 급급하여 도로의 시야를 막고 주변지세와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건설이 시의 곳곳에 자행되어지고 있어 개발의 추이가 주목되어진다.

## 2. 천안이란 지역명칭과 삼거리문화의 변화

### 1) 근세 이전의 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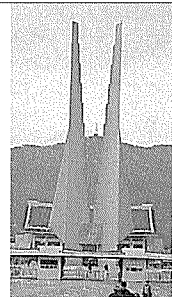
천안시 두정동의 국도변에서 유업형 석검, 석촉 등 신석기시대 유물과 주거유적도 발굴되었으며, 봉명동의 주거지 유적에서 석기류, 무문토기류, 홍도편, 즐문토기편이 발굴되어 이 지역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의 기록으로는 삼한의 맹주인 진왕의 목지국이 직산지역이라고 추정하는 사료들이 있다. 현재의 직산은 천안시의 일개 면에 불과하지만 신라시대에는 현 천안시의 대부분의 땅이 직산 고을의 땅이었다. 또한 이 직산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북



천안의 상징인 개나리꽃이 만개해 있는 천안삼거리 공원 (스케치: 박병주)



천안의 삼도상가(기존상권)



독립기념관

로부터 남분하여 처음 도읍을 설치했다고 하는 위례성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이후의 천안시는 시 동부 6개면과 풍세, 광덕을 합친 대목악과 성환, 성거, 입장, 직산, 구 천안시와 안성천 건너편 지역까지 합한 사산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백제 영토에 속하여 있다가, 고구려 장수왕때 고구려 영토가 되었다가 다시 고구려가 나제동맹에 밀려 백제영토가 되었다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압박해 들면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광덕면 광덕리에 신라 진덕여왕 6년에 진산조사가 창건했다는 광덕사가 이때의 유일한 유적이다.

### (1) 고려의 등장과 천안의 지명

후삼국이 할거할 시기에 고려 태조인 견훤에게 지술사 예방(倪方)이 찾아와, 목주땅 도술이라는 곳에 산의 능선이 뚜렷한 왕(王)자를 나타내며, 그 주위 구릉의 형세가 여의주 형국의 작은 산이 있고 오룡이 서로 구슬을 닦고 있어, 왕자 모양의 산에 산성을 쌓아 군영을 삼고 오룡쟁주의 땅에 민가 삼천호를 심으면 신라와 백제가 싸우지 않고 스스로 투항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태조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sup>2)</sup>에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고 오룡쟁주의 땅에 천안 도독부를 세우고 직산현의 일부와 목주군의 일부와 탕정의 일부를 떼어 천안 도독부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태조 13년(931)에 천안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생겼다<sup>3)</sup>. 그러나 이때는 고을이라고 하기보다는 군사도독부로 고려의 전진 사령부였다.

천안은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고려의 전진기지였으나, 삼국 통일 후 국방 경계선이 거란과의 경계인 청천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선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의미를 상실하여 소읍으로 전락하였다. 천안이 실질적으로 군사 중심지로 각광받은 시기는 6년에 불과하였으나 명칭만은 그대로 존속하다가, 성종 2년(983)에 도독부가 폐지되고 일반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천안부가 되어 공주목의 소속이 되었고 목천은 청주목의 소속이 되었다. 성종 14년(995) 천안(天安)이라는 명칭은 천자(天子)를 상징하는 명칭이라 주부군의 명칭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환주로 개칭하였다. 현종 9년(1018)에 양광도 소속이 되고 온수, 아주, 신창, 풍세, 예산, 직산, 청양과 풍세현을 속현으로 하여 천안부로 다시 개칭된다. 이때만 해도 큰 고을이었으나 그후 차차로 소군으로 전락하였다. 26대 충선왕때에 천안의 군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영주로 개칭했다가 31대 공민왕때

다시 천안부로 환원하고 조선 태종 13년(1413)에 영산군이라 하였다가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기며 옛지명으로 호칭하여 다시 천안으로 환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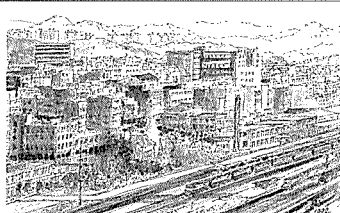
### (2)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천안

천안과 직산은 교통 중심지에 해당하여 관행의 행차뿐 아니라 역대 왕들의 운행시 유숙하던 고을이므로 근외의 지역에 소속지역을 병설하여 본군에서 부족한 생산품을 충당하는 월경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목천현은 월경지가 없었다. 천안군의 월경지 3면인 인주면 서편 해안지역인 돈의면, 현 아산시 선장의 해안마을인 덕흥면, 예산 신례원과 아산시 선장의 중간지점인 신종면이 아산과 온양을 지나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어패류 및 소금의 공급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산현의 경양면, 언리면, 안중면, 외야천면, 4개처의 월경지도 평택의 해변가 마을이다. 이렇게 천안이 고려시대에도 삼남의 요충지로서 교통의 요지였음을 고려할 때 천안 부사를 역임한 강호문이 지은 "남원루기"에서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인가와 인적이 드물어 도적을 만나거나 노숙의 곤란도 격으므로 국가에서 편의와 치안을 위하여 원(院)을 세웠다.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 국도변에 국보 7호로 고려시대 걸작품인 '봉선 흥경사 비갈'이 단청 비각안에서 고려 8대 현종의 명으로 흥경사를 짓고 광연통화원을 부설로 세워 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했던 내력을 담고 서 있다. 원에도 원전(院田)이 있어 비용을 충당했으며, 조선 초에는 역과 원이 잘 정돈되었으나, 임진왜란 이후는 거의 유명무실하였다. 험하고 위험한 곳에는 원을 남겨 두었으나, 변화한 거리는 차차로 원이 없어지고 객주나 봉노가 생겨나서 전곡을 받고 여행객을 재웠다. 고려때부터 천안 중심에서 천안삼거리로 잇는 중간에 원거리라고 불렀던 객원이 즐비한 거리가 있었다. 이 원거리<sup>4)</sup>도 봉노의 거리가 되었다. 이 이웃한 곳에 천안삼거리가 있다. 천안삼거리는 동으로는 경상감영을 통하는 진천선과 남으로는 전라감영을 통하는 공주선의 분기점으로 길이 세갈래로 갈라져서 삼거리라 하였다. 영호남 각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천안삼거리에 도착하면 발을 짚어 쉬어아만 했다. 이 당시 영호남에서 왕래하는 노

2) 태조 왕건이 올라가 지세를 살핀후 태조산이라 불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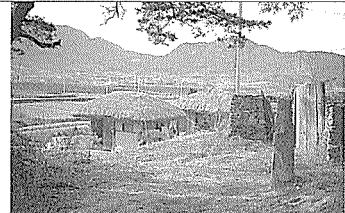
3) 현재 성곽 등 군사도독부 유적의 흔적은 없으나 왕자산 부근에 군량창이었던 곳의 마을 이름이 유량동이라 불리는 등 그 명칭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천안시를 동서로 분단하고 있는 천안역을 근경으로 한 도심부(스케치: 박병주)



천안 시외버스터미널과 갤러리아 백화점



아산시 외암리 민속마을

정기에는 천안삼거리가 반드시 휴식처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는 항상 법석거렸다. 원거리에 마방이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 길손을 재우는 객주가 많았고, 삼거리는 주막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리고 이 주막에는 요염한 귀생이 많이 있어서 길손을 유혹하였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귀생 능수와 과거보러 가던 과객의 이야기가 설화로 남아 구전되고 천안삼거리 '홍타령'으로 그 가락이 전해진다.

## 2) 근세 이후의 천안

고종 32년(1895) 공주부 천안군이 되었다가 다음해에 충청남도 천안군이 되고, 1914년 군면 통폐합 당시 목천, 직산 2군을 통합하였다.

1931년 천안면이 읍으로 승격한 후에 인구 7만이 되어 1963년 천안읍과 환성면이 통합되어 천안시가 되고, 다른 면들은 천원군이 되었다가 관민 합동으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국회에서 천원군 군명 변경에 관한 법률이 1991년 말에 제정 공포되어 1992년 천안군으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이 천안시로 개편되었다. 역사를 통하여 지역민들이 지명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 (1) 삼거리 문화의 변화

천안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로서 삼남의 분기점이었으나 경부선 호남선 열차의 분기점이 대전으로 옮겨져 한때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후 일본의 민간자본으로 세워진 경남철도가 장항선을 부설하여 새 교통도시로 발전되었으나, 경부·호남 고속도로의 분기점도 대전으로 옮겨져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외버스의 분기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고속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90년대 초에 현 갤러리아 백화점과 함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을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인 신부동으로 옮기고, 그 일대의 전답을 정비하여 고층 아파트 지역과 과밀도를 피하기 위하여 층고 3층으로 제한한 저층 상가주택 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므로써 구 역세권과는 달리 정비되어진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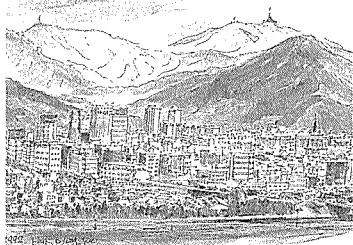
최근 정부에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계획을 세우면서 호남고속철도가 천안역에서 분기하고, 수도권

전철이 천안까지 연장 운행을 계획하여 다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고속전철의 역세권 지역으로서 서부 구릉지대에 198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단위 고층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고속전철이 완공되는 시기에 인구 50만까지 내다보는 수도권 역세에 포함되는 큰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개발은 신부동 지역처럼 위락시설 및 공원 부지확보에 대한 배려와 높이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천한 자본주의의 정신에 의해 건설되어 마치 전체 시내가 짓다가 그만둔 공사현장처럼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서울 시가지처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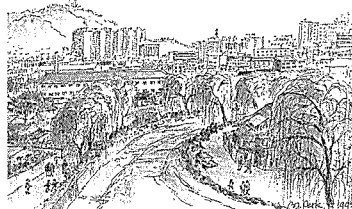
반면에 성환의 경우는 또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성환지역은 넓은 야산 구릉지대를 이용하여 과수재배와 목축업을 발전시켰다. 성환읍에는 우량종축보급을 위한 국립종축원이 일제때부터 있어서 축산업이 발달하여 젓소가 충청남도내에서 가장 많다. 과수로는 배, 사과, 포도, 참외가 생산되는데 성환배는 근래에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곳의 개구리 참외는 맛이 뛰어나 일제 강점기에는 비행기로 일본까지 실어가기도 하였다. 광복후 노랑고 및 단 개량종 참외의 등장으로 생산이 감소되었으나, 최근 성환참외가 당분이 적어 당뇨병 환자에게 효용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주문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 과수원과 목장지대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드문 근대적이며 전원적인 농촌경관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현재 대다수의 중소도시에서 행하여지는 것처럼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거하지않고 천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한 아파트의 건축이 이루어져서 지역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 인구 약 35만의 천안시에 1970년대 이후 단국대학 천안캠퍼스, 호서대학교, 상명대학교, 선문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남서울대학교, 천안대학교, 천안공업전문대학, 천안축산원예대학, 외국어전문대학, 기독교신학교 등 13개 대학이 개교하여 수도권 학생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하여 이전의 교통권 중심에서 교육도시로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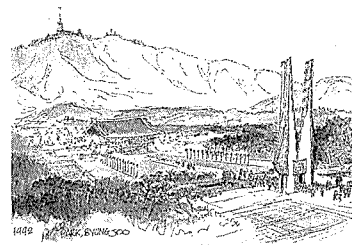
4) 현재의 원성동일.



흑성산(우측 위)과 태조봉(좌측 위)을  
진산으로 하는 천안 시가지(스케치: 박병주)



천안의 명물 능수버들이 늘어진  
천안천변의 경관(스케치: 박병주)



흑성산을 배경으로 한  
독립기념관(스케치: 박병주)